
碩士學位請求論文

「님의 沈默」의 構造 研究

指導教授 梁 淳 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梁 榮 吉

1991年度

「님의 沈默」의 構造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梁 榮 吉


指導教授 梁 淳 珽


1991年 7月 日

梁榮吉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서관 梁 榮吉 主審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副審 梁 淳玟 

副審 安 成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 論	1
II. 離別과 再會欲望의 辯證法	6
1. 話者의 欲望과 世界	7
2. 詩的 플롯의 機能과 作用	13
3. 辯證法的 認識原理	17
III. 逆說과 反轉의 修辭學	21
1. 話者와 距離	21
2. 時間錯誤와 變形技法	24
3. 逆說의 힘과 反轉 裝置	28
IV. 想像力의 作用과 構造의 全體性	31
V. 結 論	37

I. 序 論

萬海의 「님의 沈黙」은 시집 『님의 沈黙』의 전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序詩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님의 沈黙』의 88편의 詩가 일종의 連作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때, 더욱 가능한 해석이다.

지금까지 序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宋穉의 “유미주의적 초월과 혁명적 我空”, 김종균의 “逆의 美學”¹⁾, 김시태의 “沈黙하는 님의 역설”²⁾ 등의 연구와 尹在根의 『“님의 沈黙” 연구』, 金載弘의 『한용운 문학 연구』 등의 저술을 비롯한, 많은 논문과 평론의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³⁾

-
- 1) 金鍾均 著, 『梅泉·萬海·芝薰의 詩人意識』, (박영문고, 1982). P.72.
 - 2) 金時泰 編, 『現代作家 作品論』, (이우출판사, 1982), P.122.
 - 3) 송옥 著, 『시학평전』, (일조각, 1970)
김우창 外, “만해 한용운”, (문학사상, 1973년 1월)
양중희, “만해 한용운론”, 체대학보, 1976.
이인복 著, 『죽음의식을 통해 본 소월과 만해』, (숙명여대 출판부, 1979)
김현자, “김소월·한용운 시에 나타난 상상력의 변형구조”,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 논문, 1981.
김열규 外 編, 『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
김재홍 著, 『한용운 문학 연구』, (일지사, 1982)
김종균 著, 『매천·만해·지훈의 시인의식』, (박영사, 1982)
신동욱 編, 『님의 침묵하는 시대의 노래』, (문학세계사, 1983)
채수영, “한용운에 있어서의 ‘님’의 거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83.
국어국문학회 編, 『현대시연구』, (정음문화사, 1984)
윤재근 著, 『“님의 침묵” 연구』, (민족문화사, 1985)
김병택, “만해시에 나타난 꿈의 성격과 전개 양상”, (문학과 비평, 1988·여름)
그외 다수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역사주의적이고 전기적인 방법에만 머물고 있으며, 시대와 역사를 통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서 텍스트의 내재적인 질서와 법칙을 탐구하는 구조의 연구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이해할 때, 한 편의 시는 하나의 미학적 구조로서 존재할 뿐이다. 구조주의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서 시작되어 레비 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를 거쳐 토도로브(Tzvetan Todorov)와 바르트(Roland Barthes)에서 꽃핀 구조주의는 인문사회 과학의 특수한 연구 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언어학적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텍스트를 기호의 집적물로 보고 그 구성 요소들을 절단(decoupage)하고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규약을 밝혀냄으로써 여러 가지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쥘레트는 『구조주의와 문학비평』에서 비평활동을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했으며⁴⁾, 바르트는 이야기체 작품에서 세 가지 층위⁵⁾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구조주의의 자양분을 제공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시에 있어 소리의 문제와 초이성적인 언어의 문제를 통해 시적 언어의 분절적 양상(aspect articulatoire)을 강조하고, 그 중 그레마스(A. J. Greimas)는 기호학을 보다 독립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접근 방식은 우리 나라에서도 70년대 중반 이후 그 이론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80년대 초를 기점으로 작품 분석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이승훈의

4) 첫째, 당대의 작품을 독자에게 평가해 주는 비평적 기능, 둘째, 연구의 대상으로서 문학 작품을 다루는 학문적 기능, 셋째, 문학 작품의 문학성을 규명하는 문학적 기능으로 분류했다.

5) 첫째, 기능단위들의 층위(niveau des fonctions), 둘째, 행위 단위들의 층위(niveau des actions), 셋째, 서술의 층위(niveau de la narrations)로 구분하였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분석”, “운동주의 <序詩> 분석”, “<배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조 분석”, 정호구의 “<招魂>의 구조주의적 분석” 등이 있으며, 「님의 沈黙」에 대하여는 박철희가 “한용운 시작품의 정체”⁶⁾에서 구조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상섭의 “독자 반응 이론의 여러 변모”⁸⁾에서는 예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서구 이론을 형태적으로 차용한 텍스트의 분석 자체에만 머물고 있어서 텍스트의 구조가 지니고 있는 미학적(문학적)을 해명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분석이론을 텍스트 하나 하나에 적용할 때 그 방법론적인 문제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재단하느냐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재단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총체 구조 속에서 요소 하나 하나가 지니고 있는 의미(significative) 기능을 탐색하고 둘째, 재구성 단계에서는 분절된 부분들을 법칙성에 의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미학적 분석에 있어서는 언어학을 그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문장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반하여, 담화 구조의 분석은 그 대상인 담화 자체가 여러 문장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 하나의 문장은 여러 요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담화도 수많은 요소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문장과의 구조적 유사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구조주의는 객관적인 과학주의를 포방하고 작품의 내재적인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와 역사성을 배

6) 이승훈 편, 『한국문학과 구조주의』, (문학과 비평사, 1988)에서 대부분 소개되고 있음.

7) 박철희 · 김시태 엮음, 『문예비평론』, (문학과 비평사, 1988), P. 237.

8) 이상섭 저,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8)

제하고 가치 평가를 유보함으로써 텍스트 분석이 내재성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구조주의 이론⁹⁾의 모든 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위의 한계성을 또 다시 드러내는 결과만을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배열구조를 탐색하되, 위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하여 상상력 이론¹⁰⁾등의 해석학과 현상학의 방법을 원용하여 미학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소설에서 자주 적용되던 '시간'의 문제와 시에서 언급되는 '거리'의 문제, 그리고 모든 욕망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감정 흐름의 속도'와 연관시켜 문학성을 살펴 봄으로써 소설 분석의 차원을 넘어서 시적 구조의 원리와 핵심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텍스트의 구조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은 나름대로의 상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또 텍스트는 하나의 구조로서 文學性(literariness)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학 연구의 1차적인 텍스트는 작품 그 자체가

-
- 9) 츠베랑 토도로브 저, 『구조시학』, 각광수 역, 문학과 지성사, 1983.
김치수 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기린원, 1989.
박종철 편, 『문학과 기호학』, 대방문화사, 1983.
유리 로트만 저, 『시 텍스트의 분석 ; 시의 구조』, 가나, 1987.
안성수, “구조주의 텍스트 분석 방법론과 그 실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81.
김병욱 편, 『현대 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3.
김정자 저, 『한국근대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삼지원, 1985.
김천혜 저,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0.
뮤어 저, 『소설의 구조』, 안용철 역, 정음사, 1975.
시모어 체트먼 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민음사, 1990.
웨인 부우드 저, 『소설의 수사학』, 최상규 역, 새문사, 1985.
- 10) 가스통 바슐라르 저, 『공간의 시학』, 각광수 역, 민음사, 1990.
각광수 외 저, 『바슐라르의 연구』, 민음사, 1976.
폴 지네스티에 저, 『바슐라르의 사상』, 김현수 역, 금문당출판사, 1983.
김현자, “김소월. 한용운 시에 나타난 상상력의 변형구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논문, 1982.
안성수, “한의 맏힘구조와 역동적 상상력”, 제주대학교 논문집, 1988.

며, 그 텍스트는 화자와 청자를 가상한 작가와 독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言語的 소통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적 집적물은 有機的 秩序에 의하여 독특한 배열구조를 갖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 텍스트의 분석은 그 언어의 배열 방식과 질서를 해명하는데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님의 沈黙」이라는 텍스트를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보고 이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시적구조의 특성을 밝혀 내고자 한다. 따라서 '이별과 재회의 변증법'에서는 화자의 욕망과 시적 플롯(poetic plot)의 기능 탐색을 통하여 어떠한 인식의 원리에 도달하게 되는가를 밝히고, '역설과 반전의 수사학'에서는 화자와 거리, 시간착오, 그리고 반전과 역설을 위한 구조적 장치 등의 미적 기능을 해명하고, 마지막으로 '상상력의 작용과 구조의 전체성'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의 의미구조를 상상력과 연관시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러한 구조를 갖을 수밖에 없는 내적 필연성을 구조의 미학적 차원에서 밝혀 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조주의적 분석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이 보여준 추상성에 머무는 관행적 분석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의 문제와, 창작 이론에 있어서 문학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문제도 탐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II. 離別과 再會欲望의 辯證法

문학 작품을 하나의 談論 체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상호 관계를 전제하는 이야기의 소통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¹¹⁾ 그러므로 詩란 이들 사이에 주고 받는 '거래(transaction)'이며, 이 거래 가운데 화자의 진술 태도는 언표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내면적 욕망 사이에서 서로 모순되어 갈등을 겪고 전환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도약되는 변증법을 이룬다고 하겠는데, 이는 메타포의 영역에서 작용하여 구조 미학적 사태를 결정짓게 하며,¹²⁾ 이러한 사태는 하나의 역동성을 갖고 있어 화자의 정서 흐름을 조절하고, 욕망으로 분출하게 하여 의미 생성과 인식의 원리로 작용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시적 화자의 욕망 분석을 통하여 화자의 욕망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분출하고 있는가, 둘째, 그러한 화자의 욕망과 기능이 어떠한 시적 플롯을 형성하는가, 셋째, 그리고 시적 플롯이 생성하는 역동적 의미 기능과 인식의 원리는 무엇인가 등을 밝히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11) 시모어 채트먼 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민음사, 1990), 183 쪽에 의하면

서사적 텍스트

실제작가 ... > 내포작가 —>(서술자) —>(피화자)—>내포독자 ... > 실제독자

내포작가와 내포독자만이 서사물에 내재하는 것이며, 서술자와 피화자는 임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실제작가와 실제독자는 서사적 교호작용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12) 가스통 바슐라르 저,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민음사, 1990), P.375.

1. 話者의 欲望과 世界

하나의 구조를 갖는 담화는 어떤 형태로든 화자(주체)의 욕망이 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욕망은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잠재되어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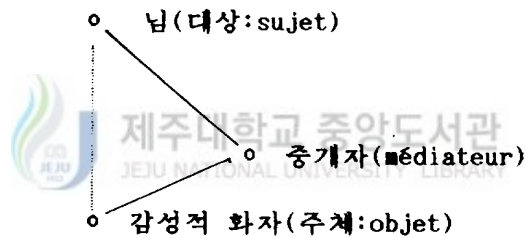
그러므로 화자의 욕망은 텍스트의 구조를 지탱하는 힘인 동시에 텍스트의 의미와 상징을 창조하는 힘인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욕망은 텍스트의 담론 체계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심리, 혹은 의식 속에 내포되어 포출되기도 하며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기도 한다. 현재의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때 초월은 욕망의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 ① 님은갓습니다 아야 사랑하는나의님은 님은갓습니다
- ② 푸른산빛을세치고 단풍나무숨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떨치고 갓습니다
- ③ 黃金의꽃가티 굿고빛나는 옛盟誓는 차되찬씩끝이되야서 한숨의微風에 내려갓습니다
- ④ 날카로운 첫「키쓰」의追憶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뒤서 거름쳐서 사러갓습니다
- ⑤ 나는 향기로은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숫다는 님의얼굴에 눈머릿습니다
- ⑥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만날제에 미리 썬날것을 염너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리별은 뜻밖의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숨에 터집니다
- ⑦ 그러나 리별은 쓸데업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 세치는 것인줄 아는사담에 것잡을수업는 숨의힘을 옮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엇습니다
- ⑧ 우리는 만날제에 썬날것을염너하는것과가티 썬날제에 다시맛날

것을 맞습니다

- ⑨ 아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습니다
- ⑩ 제곡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님의 沈黙을 뵘싸고돕니다 13

욕망 탐색의 기본 방향은 그 주체(화자)가 밑에 있고 대상(침묵하는 님과의 재회)은 수직선상에 위치하게 된다.¹⁴ 그러나 그 전달체계는 대상에 대한 직접 욕망이 불가능할 경우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욕망을 달성케 도와주는 중개자(길, 盟誓, 한숨, 追憶, 향기, 꽃, 리별, 슬픔, 눈물, 希望, 믿음, 사랑의 노래)의 도움으로 추구하게 된다. 즉, 욕망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중개자가 3각형의 구조를 갖는 것이다.¹⁵ 이러한 3각형의 욕망 구조는 여러 모양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데, 연구 대상인 텍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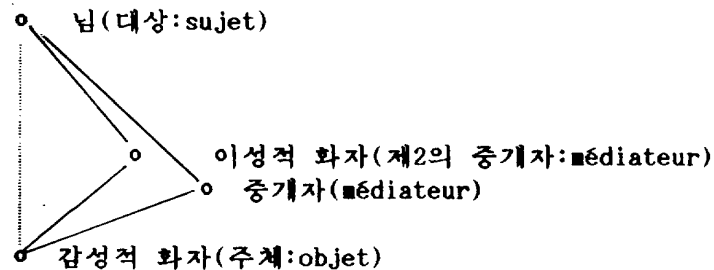


13) 줄 앞의 ①②와 같은 원문자는 필자가 설명을 위하여 붙였음.

14) 김치수 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기린원, 1989), P.181

15) 르네 지라르, 『소설의 이론』, 김윤식 역, (삼영사, 1979)에서는 이를 3각형의 욕망(désir triangulaire)라 하고 있다. 이 3각형의 기본은 욕망의 대상을 상위에 두고 그 주체와 수직적으로 연결되며, 수직의 중간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중개자가 존재하여 '대상과 중개자'의 거리와 '중개자와 주체'의 거리가 같은 2등변 3각형을 이룬다.

도표와 같이 화자의 욕망은 주체에 대해서는 님의 부제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자를 빌어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중개적 요소는 화자와의 거리보다 주체와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화자의 욕망을 성취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화자로 하여금 갈등의 힘으로 작용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개자와 주체 사이에 화자의 또 다른 존재가 위치하게 된다. 즉, 화자의 이중구조를 볼 수 있다. 이의 이중구조를 구분하여 주체로서의 화자를 '감성적 화자'라 하고, 중개자와 주체 사이의 화자를 '이성적 화자'라고 한다면¹⁶⁾ 다음과 같은 또 다른 3각형의 욕망 전달 과정을 볼 수 있다.



16) 김준오 저, 『시론』, (문장, 1982), P. 207에서는 작품의 이면에 숨은 함축적 화자(implied speaker)와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적 화자(phenomenological speaker)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1인칭 화자인 경우 토 한 편의 시에 있어서 하나의 화자를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1인칭 화자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얼굴은 경우에 따라 두 모습을 전부 드러내기도 하고, 어느 한 모습만 드러내면서 숨어 있는 모습을 함축함으로써 작품의 질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두 얼굴을 하나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는 '감성적 화자'로, 또 하나는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이성적 화자'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관계는 주체의 욕망 구조 속에 감성적 욕망과 이성적 욕망이 잠재된 형태로 숨어 있다가 감성적 욕망이 상승하면 '감성적 화자'가 전면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성적 욕망이 상승 작용을 하면 '이성적 화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가 이 두 욕망은 주체의 자아와 외부 세계와의 조응과 반응에 따라 데립과 충동, 반전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① 님은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님은갓습니다 / ② 푸른산빛을
 세치고 단풍나무숨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떨치고 갓습니다 / ③
 黃金의꽃가티 굿고빛나는 옛盟誓는 차디찬씨끌이되야서 한숨의微風에 내려
 갓습니다 / ④ 날카로운 첫「키스」의追憶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뒤
 시 거름쳐서 사러갓습니다 / ⑤ 나는 향기로은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갓다
 은 님의얼굴에 눈머갓습니다 ”, “⑥² 리별은 뜻밖의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숨음에 터집니다 ”에서 ‘님’은 감성적 화자로 하여금 끝없는 욕망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화(médiation)되고 있으
 나, 중개자는 주체의 욕망추구에 기여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망에 불을
 당기는 구실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이성적 화자는 감성적 화자보다 우
 위에서 내담자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제 2의 중개자가 “⑥¹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만날때에 미리 썬날것을 염너하고경계하지 아니한
 것”, “⑦² 리별은 …… 스스로 사랑을 세치는 것 / ⑧ 우리는 만날때에
 썬날것을염너하는것과가티 썬날때에 다시맛날 것을 밋습니다 ”로 감성적
 화자의 욕망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감성적 화자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요소가 욕망추구의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여 결국에 가서는 “⑦²
 것잡을수업는 숨음의힘을 움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엇습니다”,
 “⑨ 아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앗습니다”로 제 2의 욕망
 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체가 언제나 경쟁적인 두 가지 욕
 망, 즉 ‘님을 그리워함’과 ‘이별을 부인함’을 잠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2중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 2의 중개자(이성적 화자)’를
 욕망의 주체(sujet : 감성적 화자)로부터 분리시켜 정신적 편차(écart)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에서는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중첩될 정도로
 가까운 ‘내면적 간접화(médiation interne)’를 이루고 있다.¹⁷⁾

17) 주체와 중개자의 거리를 두 개의 원으로 표시할 때, 그 거리는 중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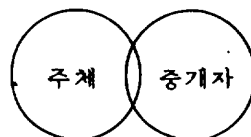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중개자와 욕망의 주체(sujet désirant) 사이의 거리는 상상적 차원으로 '감성적 화자'의 욕망이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힘'은 '님'을 더욱 선망하게 한다. 이러한 선망 때문에 "⑤나는 향긋로운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얼굴에 눈머릿습니다"와 같은 마비(paralysie)와 무지(ignorance)를 실패의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망은 '暗'에서 '明'으로 生滅의 원리에 의하여 순환되는 상상의 세계를 보여 주면서 "푸른산빛"과 "단풍나무숲" 사이에서 이분법적 구조를 보여 주는 화자의 욕망과 정서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그 하나는, "푸른산빛"의 세계로 '님'이 있는 곳이며, 희망적으로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지만 미래에 대하여 재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여기는, "굿고빛나든 盟誓", "날카로운 첫 키스", "향긋로운 님의말소리", "꽃다운 님의얼굴", "새希望", "사랑의노래"가 있는 공간이다. 또 하나는 "단풍나무숲"의 세계로 '님'이 없는 곳이며, 우수적으로 닫혀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현재이면서 욕망이 단절된 화자의 인식(참여 못 갈 길을 갔다)을 볼 수 있게 한다. 여기는 "차타산씨살", "한숨", "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새로운숨음", "눈물의源泉", "님의沈黙"하는 공간이다.



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체가 선택한 간접화된 대상(중개자)은 화자 스스로의 주관성 속에서 환기된 내면적인 모티프들이기 때문이다.



18) 김치수 편의 위의 책에서는 '선망'을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게 되는 노력에 대립되는 무력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에서는 부재하는 '님'의 자취에 몰입하고자 하는 화자가 '님'의 세계에 좀더 가까이 접근하려 하지만 그 거리를 좁힐 수 없는 데서 볼 수 있는 '그리움이 응결된 선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생명의 원리를 담고 있어 '현재 이별'을 내포하고, '과거 만남'을 유추하게 하고 있으며, 화자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의 정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중개자인 이성적 화자에 의해 '滅'을 '生'으로 전환하려는 하나의 의지로 전개되면서도 감성적 화자는 "님의沈黙을 험잡고됩니다"의 정서로 흘러서 두 화자를 하나의 화자로 묶어 생각할 때 생명의 순환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단풍나무숲"의 세계는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어야 할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긋고빛나든 鹽醬", "날카로운 첫키스", "향기로은 님의말소리", "꽃다운 님의얼굴", "새希望", "사랑의노래"가 '닫혀 있는 공간'을 그냥 두지 않고 '열어야 할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⑥⑦⑧을 통하여 '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고, ⑨에서 '열려 있는 공간'으로 반항하고 있다. 결국 중개자와 제2의 중개자는 주체로 하여금 이분법적 인식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과 '술'은 인간들의 이야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성의 공간으로 평화가 있고,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다. 그 깊이에 있어서는 어둠의 무한을 가지고 있어 화자의 영혼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적은길'은 내밀한 깊이로 통하는 門이다. 이 내밀의 세계는 문을 사이에 두고 무한의 드넓은 세계에 대한 전망 속에서 발전하면서 잠겨들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ex의 현상학'¹⁹⁾을 위한 요소들로 짜여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내밀의 공간과 외부 공간은 끊임없이 서로 고무하면서 '이별을 부인'하는 욕망으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망이 어떠한 미적 구조를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탐색하여 보기로 하겠다.

19) 가스통 바슐라르 저, 『공간의 시학』, P.355에 의하면 ex의 현상학이란 확장(extension)의, 팽창(expansion)의, 황홀(extase)의 현상학으로 내밀의 공간의 무한에 대해 갖게 되는 세 가지 주된 인상을 말한다.

2. 詩的 플롯의 機能과 作用

시적 플롯(poetic plot)이란 한 편의 詩의 의미 구조와 상징 체계를 구성하는 조직 원리를 가리킨다. 이러한 시적 플롯은 일반적으로 그 전체 구조를 인과성의 논리와 연결시켜 해석할 때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러므로 시적 플롯에 대한 연구는 한 편의 시를 유기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살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적 플롯에 대한 탐색은 우선, 자연적 시간을 어떻게 경험적 시간으로 재구성했느냐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자연적 시간은 외부적, 기계적, 절대적 시간으로써의 소재의 배열을 의미하며, 경험적 시간은 소재의 시간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한 문학적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험적 시간은 외부 시간과의 조화와 변형을 통하여 문학적 시간으로 파생되어 인식된다. 그러므로 문학적 시간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초월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현재를 누릴 수 있으며, 시간을 가역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시간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적 시간의 순서를 추출하여 그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게 된다. 「님의 沈黙」의 경험적 시간을 자연적 시간으로 환원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7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²⁰⁾

1 단계

- ④¹ 날카로운 첫「키스」
- ③¹ 黃金의꽃가티 굶고빚나든 盟誓
- ①¹ 제국조물뭇이기는 사랑의노래

20) ②③ 등의 원문자 뒤에 붙인 1,2는 시간적 순서를 기준으로 재단한 것으로 줄의 전반부, 후반부를 일컬음.

- ⑤ 향기로은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얼굴에 눈머릿습니다

2 단계

- ① 님은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님은갓습니다
② 푸른산빛을재치고 단풍나무솨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여쩔치고 갓습니다

3단계

- ③² 盟誓는 차디찬찌꺼이되야서 한솨의微風에 나러갓습니다
④² 追億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뒷걸음쳐서 사러갓습니다

4단계

- ⑦¹ 그러나 리별을 쓸데업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파는것

5 단계

- ⑥¹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맛날제에 미리 썬날것을 업너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⑦² 리별은 스스로 사랑을재치는 것인줄 아는사담에
⑧¹ 우리는 맛날제에 썬날것을업너하는것
⑨¹ 아아 님은 갓지마는
⑥² 리별은 뜻밖의일이되고 놀난가솨은 새로운솨음에 터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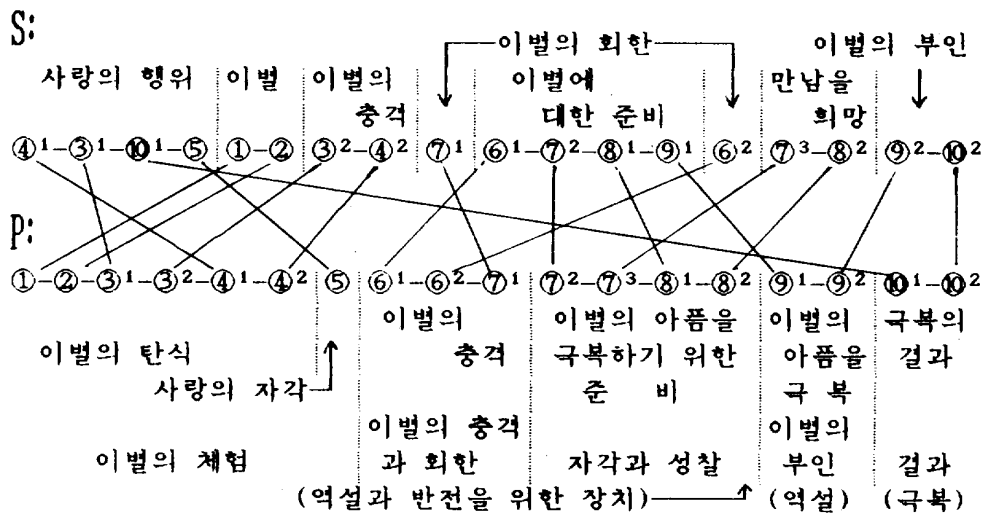
6 단계

- ⑦³ 것잡을 수업는 솨음의힘을 옮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엇습니다
⑧² 다시맛날것을 믿습니다

7 단계

- ⑨²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앗습니다
⑩² 사랑의노래는 님의沈黙을 힘짜고돕니다

이것을 다시 스토리 라인(story line)과 플롯 라인(plot line)으로 대비시켜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S는 story line, P는 plot line를 가리킨다.)



이것은 시적 플롯이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이 시가 갖는 시적 플롯에 의한 화자의 행위는 자연적 시간에 의해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시간에 의해서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문학 연구는 내재성을 획득하고 작품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 시에서는 '님'과 '나'사이에서 '사랑'에 대한 욕망 행위로 전개되고 있다. 그 행위는 '님'과의 '이별'에서부터 시작되며, '만남'에 대한 '실패'를 향하여 행동한다. 그 만남을 위한 행동을 인식하는 것은 자연적 시간이기보다는 경험적 시간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긴장을 유발하고 미학적 구조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결국 화자는 시적 구조에 의해서 깨닫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②③에서 '이별'을 거듭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④ "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라는 이별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 이별이라는 「운명」을 예지하

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⑤“귀먹고”, “눈머렸습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자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⑥“슬픔”을 통하여 ⑦“슬픔의힘”을 “새希望의 정수박이”로 치환시키려는 의지도 보인다. 이는 ⑨의 역설을 위한 준비이며, ⑨의 역설은 강인한 의지이자 ⑧과 같이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중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성²¹⁾에 의해서 강화되어 미적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⑩의 “님의沈黙”은 ‘침묵하는 님’으로 표상되어 경외적 존재로 인식하고 화자의 내면에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었습니다”와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로 내재시키는 능동적 행위로 귀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적 플롯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상징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주제의 세계를 이끌어 내고 있는 시적 인식의 원리를 탐색하여 보기로 하겠다.



21) 시모어 채트먼은 기능단위의 층위(niveau des fonction)를 중핵(kernel)과 위성(satellite)로 구분하고 있다.

3. 辯證法的 認識原理

이 詩는 두 개의 풍부한 사건 — 만남과 이별 — 이 존재한다. 이 두 사건 사이에 바로 변증법적 인식 논리가 작용한다. 하나의 원인(이별)에서부터 결과(이별을 否認)에 이르기까지 화자의 체험 속에서 논리적 모순이 지양되어 의식이 성장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양이란 모순을 없애기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 속으로 내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모순은 곧 시적 인식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자양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詩의 미적 구조를 본질적인 변증법적 인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텍스트의 구조적 역동성이 변증법적 자양분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성의 변증법적인 원리에 의해 화제, 또는 청자를 향한 비유의 거리와 정서의 안정·불안정이 서로 얽혀 교차되다가 보다 새로운 안정된 인식 논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즉, “①님은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님은갓습니다”에서는 불안정한 정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으로써 비유할 수 없는 직설로 매우 격앙된 목소리를 볼 수 있게 한다. 반면에 “②푸른산빛을새치고 단풍나무숨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떨치고 갓습니다 / ③黃金의꽃가티 굿고빛나든 옛盟誓는 차되찬찌끝이되야서 한숨의微風에 내려갓습니다 / ④날카로운 첫「키스」의迫億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뒷걸음쳐서 사라갓습니다”에서는 안정을 되찾아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비유의 여유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⑤나는 향기로은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솟다은 님의얼굴에 눈멀엇습니다”에서는 비유의 여유는 있으나 역시 불안정한 정서를, “⑥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맛날제에 미리 써날것을 엄너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리별은 뜻밖의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숨을

에 터집니다 / ⑦그러나 리별을 쓸데없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새치는 것인줄 아는사담에 것잡을수업는 습음의힘을 옮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엿습니다 / ⑧우리는 맛날때에 써날것을 염너 하는것과가티 써날때에 다시맛날것을 맛습니다”에서는 우회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만한 안정된 정서를, “⑨아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 하앗습니다”에서는 이를 ‘이별’과 ‘이별의 否認’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 결과 “⑩계곡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님의沈黙을 험싸고돔니다”를 제시 하고 있으나 합일에 이르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서를 내포하고 있어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서의 변증법적 흐름은 작용영역(domain opérationnel)에 의해 그 경험을 합리적이게 해 준다. 그러면서 인식의 범위를 확대 가능성의 환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인식으로부터 진정한 변증법적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실체론적(substantialiste) 의미에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 가치는 반가치(anti-valeur)에서 나타나야 한다. 존재는 허무로부터 나올 때만이 그 가치를 지닌다.²²⁾ 하나의 양자 택일—이별의 아름다움과 만남의 갈망—을 제기할 때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다. 이 새로운 맥락 속의 인식은 주체로 하여금 가치를 바꾸거나 확대의 가능성을 경험하도록 안내한다. 필연적인 인식 논리와 정서의 흐름에 의해 합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등이 변증적으로 유발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⑥⑦⑧과 같은 대목에서는 정서의 상승과 하강을 통하여 욕망의 해소와 점증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이별의 상황을 미화시키면 미화시킬수록 그 슬픔은 만남에 대한 그리움으로 증폭되고,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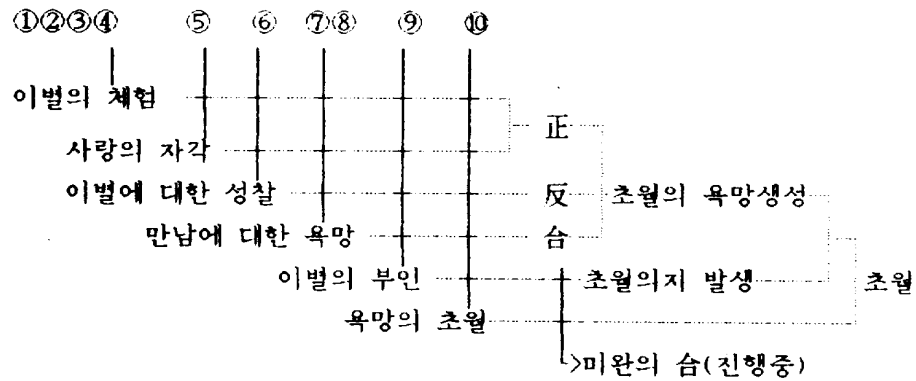
22) 폴 지네스티에 저, 『바슐라르의 사상』, 김현수 역(금문당출판사, 1983), P. 80.

남에 대한 그리움이 타오를수록 이별을 부인하고 싶은 욕망이 생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①에서 “갓습니다”를 반복하고, 다시 ②③④에서 반복함으로써 정서는 끝없이 고조되고 의미는 증폭되어 주체의 욕망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한 욕망의 힘이 변증법적인 상상력을 잉태하게 하고 역설과 반전은 하나의 초월의 세계를 지향하게 한다.

‘계기’와 ‘인과’의 혼동이 행동의 원동력이라 한다면,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또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이야기 가운데 조직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임혀지는 논리적인 오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적 오류는 오히려 조직적으로 작용하여 더 변증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강력한 초월의 힘을 낳게 한다.

그러한 힘이 화자로 하여금 “⑥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써날 것을 염너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리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난 가슴은 새로운 숨에 터집니다” 등의 행동을 통하여 “⑨아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앗습니다 / ⑩ 제국조물뭇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沈黙을 힘싸고돕니다 ” 등과 같은 강한 역설의 힘과 초월의 욕망을 촉발하고 있다. 그리고 “날카로운 첫「키스」의 追憶”, “향긋로운 님의말 소리”, “꽃다운 님의얼굴” 등의 위성들은 주체의 욕망을 자극하고 환기시켜 줌으로써 변증법적 힘을 낳게 하는 자양분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주체의 욕망은 ‘이별’과 ‘이별의 否認’을 거쳐 결국 숨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데 이에 실패함으로써 ‘침묵하는 님’을 중심으로 환기되는 재회의 욕망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⑦⑧의 자각을 통하여 합일의 경지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전과 역설의 힘으로 작용하여 초월의 힘을 축적하고, ⑨의 초월 의지와 결합하면서 화자의 욕망은 초월의 경지를 이르고 있다. 이는 다시 ⑩의 “사랑의 노래”와 ‘침묵하는 님’을 사이에 두고 순환을 거듭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미완의 변증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미완의 변증법을 이루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러한 힘의 원리를 이루는 역설과 반전 장치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Ⅲ. 逆說과 反轉의 修辭學

하나의 미적구조를 갖는 담화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든 반전되지 않으면 그 구조에 있어서 응결된 맛을 잃게 된다. 즉, 응결되고 여과되기 때문에 하나의 미학적 구조는 역동적인 감동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응결력은 흔히 굴절과 반전의 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데, 이 작품 속에서 굴절의 힘은 역설의 논리를 낳는 원동력이 되어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창조하는데 기여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역설과 반전의 힘은 결말부에서 시적 주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되어, 강력한 서정적 반향과 울림을 남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역설의 힘과 반전의 힘을 발생케 하는 여러 가지 미적 기법의 작용을 살펴보고, 특히 '화자와 화제', '화자와 청자'와의 거리 문제와 시간착오의 효과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話者와 距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화자(persona)가 텍스트의 구조 속에서 화제나 피화자, 또는 내포 독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발생하는 審美的 距離(psychical distance)는 시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는 감정의 흐르는 속도를 담고 있어서 작품의 행동 속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는 경험적 시간 속에서 미적 가치의 축을 바탕으로 동일성으로부터 정반대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심미적 거리는 미적 관조의 대상과 이 대상의 미적 호소로부터 감상자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즉 실제적 요구나

목적으로부터 그 대상을 분리시킴으로써 획득된다.”²³⁾

이 작품 속에서는 상반되는 두 개의 사건 — 이별과 재회에 대한 갈망 — 이 갖는 내밀한 時空이 곧, 심미적으로 반응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심미적 거리를 통하여 주체의 욕망과 감정이 흐르는 속도를 측정해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위성적 요소들이 중핵적 요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거리는 진술하는 화자의 심리적 양상과 조절방식에 의해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화제와의 거리와 청자와의 거리를 통하여 화자의 진술의도를 살펴 볼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흐르는 속도의 완급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심미적 거리의 측정은 비유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우선 ‘화자와 화제’,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부터 살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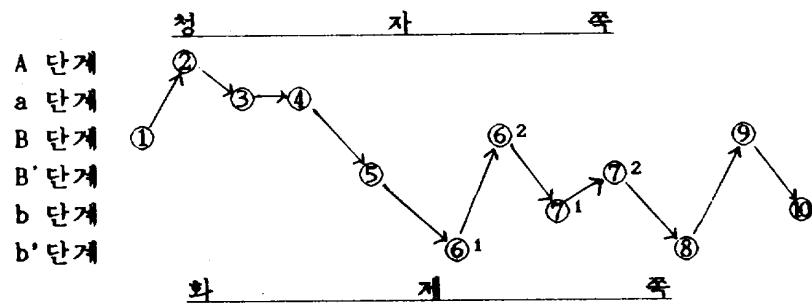
- A 화자보다 청자 쪽에 가까운 거리 : ②
- a 청자보다 화자 쪽에 가까운 거리 : ③, ④
- B 화자와 화제가 일치하는 거리 : ①, ⑥²⁾, ⑨
- B' 화자와 화제가 거의 일치하는 거리 : ⑦²⁾, ⑤
- b 화제보다 화자 쪽에 가까운 거리 : ⑦¹⁾, ⑩
- b' 화자보다 화제 쪽에 가까운 거리 : ⑥¹⁾, ⑧

이러한 거리는 B에서는 충분한 시적 상관물이 없이 감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직접 발화하는 절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A·a·B' 단계에서는 정서 과다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어 아직 감정의 흐름이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b 단계에 와서 분리(detachment)되기 시작하

23) Edward Bullough, 『Psychical Distance as a Factor in Art and Aesthetic Principle』, P.94. 여기서는 김준오 저, 『시론』, (문장사, 1982), P.215에서 재인용

여 b' 단계에 이르러서는 초연(alloofness)의 자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시적 구조에 의하여 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거리의 좁고 넓음이 교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poit line : ① -② -③ -④ -⑤ -⑥¹ -⑥² -⑦¹-⑦² -⑧ -⑨ -⑩
 distance : B -A -a -a -B' - b' -B -B -B' -B' - B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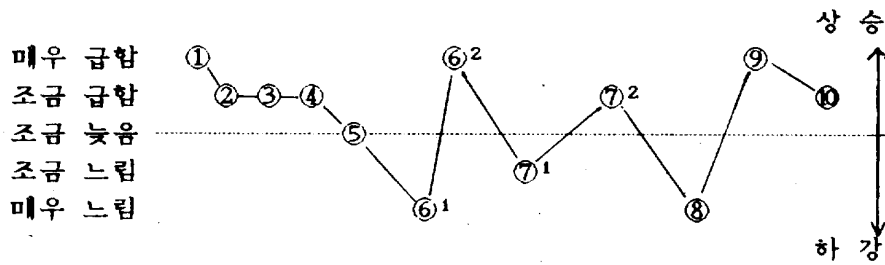


이 도표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청자쪽(A, a)에 치우쳐 있다기보다 화계 쪽(B, B', b, b')에 이끌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감정의 흐르는 속도에 따라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매우 급한 속도 : ①, ⑥², ⑨,
- 조금 급한 속도 : ⑦², ②, ③, ④, ⑩,
- 조금 늦춰진 속도 : ⑤,
- 조금 느린 속도 : ⑦¹,
- 매우 느린 속도 : ⑥¹, ⑧

이를 미적 구조에 의하여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거리와 연관되어 '가까이 멀리, 급하게 천천히'로 짜여지는 극한적 대립의 미적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거리 조정의 문제는 '님'을 어떻게 바라 보느냐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직설로써는 진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화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화자는 청자와 화제보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기 위한 거리의 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임법에 있어 상대 높임인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이며 의례적인 어조로 진술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님'은 가까이 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리 속에 존재하는 敬畏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움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그리움은 시간착오의 문제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時間錯誤와 變形技法

일반적으로 현대의 모든 담화는 사건 자체의 시간과 화자가 사건을 진술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순서상의 전도가 다르게 되는

데, 이를 시간착오(anachronies)라고 한다. 이러한 시간착오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추상(eétrospections)과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 하는 예측(prospections)으로 나눌 수 있다.

「님의 沈黙」에서는 이러한 시간착오를 확연히 드러내는데, “날카로운 첫「키스」”, “향기로은 님의말소리”, “꽃다운 님의얼굴”은 과거의 상황을 알려 주면서 “님은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님은 갓습니다”보다 나중에 이야기함으로써 추상적인 시간착오를 낳고 있으며, “아아 님은갓지 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앗습니다”에서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게 하는 시간착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시간성은 ‘과거 만남’과 ‘현재 이별’이라는 시간착오에서 현재의 공간으로 돌아 오는 데 걸리는 거리(portée)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의 본 흐름에서 벗어나서 시간적인 경과를 보여주는 시간 착오의 넓이를 확보하고 있다.

- ④ 날카로운 첫「키스」의 迫億은 나의 運命의 指針을 돌너노코 뒤시 거름 쳐서 사러젓습니다
- ⑤ 나는 향기로은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얼굴에 눈머릿습니다



이러한 시간 착오는 “님은 갓습니다”라는 중심 이야기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부적 시간착오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담화의 시간성에 있어서 포상된 행동이 지속(durée)하는 시간과 그것을 환기하는 진술을 읽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님은 갓습니다”에서는 ‘과거 만남’을 진술의 시간이 흘러간 시간에 대응하지 않는 생략(ellipse) 혹은 요약(résumé)에 해당하는 지속의 범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두 시간이 완전히 일치하는 장면(scène)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⑦ 그러나 리별은 쓸데없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 재치는 것인줄 아는자답에 것잡을수업는 습음의힘을 옮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엿습니다

⑩ 계곡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님의沈黙을 힘싸고돕니다

그리고 시간의 빈도(fréquence)에 있어서 두 시간성의 관계는 하나만의 진술이 하나만의 사건을 환기하는 일회적(singulatif)이야기로 시작되어

① 님은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님은갓습니다

두 개의 사건 —— 즉, 과거의 만남과 현재의 이별 —— 들을 환기하는 반복적(itératif)이야기로 이끌어 나가면서

② 푸른산빛을재치고 단풍나무숨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떨치고 갓습니다

③ 黃金의꽃가타 굿고빛나든 옛盟誓는 차디찬피꽃이되야서 한숨의微風에 내려갓습니다

④ 날카로운 첫「키스」의迫億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뒤스거름쳐서 사라젓습니다

⑤ 나는 향기로은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얼굴에 눈머렸습니다

⑥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만날제에 미리 써날것을 염너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리별은 뜻밖의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 습음에 터집니다

⑦ 그러나 리별은 쓸데없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
을 세치는 것인줄 아는사담에 것잡을수업는 슬픔의힘을 옮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엿습니다

⑧ 우리는 만날때에 써날것을업너하는것과가티 써날때에 다시맛날
것을 맛습니다

⑨ 아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앗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을 환기하는 다회적(répétitif)이야기
로 진술하고 있다. 즉, “님은 갓습니다”의 사건이 ‘과거 만남’과 이별의
결과②③④, 사랑의 자각⑤⑥, 극복 의지⑦⑧, 이별의 거부⑨ 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시간성은 시제에 의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 님은갓습니다
- 내려갓습니다
- 사러갓습니다
- 눈머렀습니다
- 슬픔에 터집니다
- 드러부엿습니다
- 맛습니다
- 아니하앗습니다
- 험싸고돕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와 같은 절대시제를 통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발화의 시간이 현
재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화자의 동작상이나 발신의도 및 인식이 단절
적 발화가 아닌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상대 시제를

- 차디찬씨곶이되야서
- 운명의指針을 돌너노코
- 것잡을수업는
- 아아 님은갓지마는
- 재곡조를못이기는

통하여 발신자의 현재 동작상을 나타내면서 현재의 이야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기’의 시간성을 얻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그 자신의 보다 넓은 미적 대상에 맞추기 위한 의도로 봄으로써 위의 詩를 ‘연작시’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²⁴⁾

이러한 시간착오의 문제는 경험적 시간 위에서 진술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힘은 역설의 구조를 낳을 수 있다. 이제 이러한 힘이 어떻게 역설과 반전의 논리를 생성하게 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3. 逆說의 힘과 反轉 裝置

화자의 진술이 언표적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화자는 진술한 데 따르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는 화자가 청자, 또는 내포 독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바라 보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화자의 전망(visoin)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그 전망은 통찰의 정도에 따라 그 넓이와 깊이를 갖게 되고, 또한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표상된 욕망들에 대하여 화자가 내리는 평가는 화자의 가치판단

24) 윤재근, ““님의 침묵” 연구”, (민족문화사, 1985) P.208

의 원리와 심리적인 반응이 표징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욕망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욕망의 힘'은 투시의 방향에 따라서 더 많은 '힘'을 비축하게 되어 정점을 향하여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이성적 화자'가 개입하여 하강을 시도하지만 '감성적 화자'에게는 오히려 상승의 힘으로 작용하여 추구하는 욕망을 반전시키는 역설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역설의 힘은 인격적 투시와 비인격적 투시가 조화를 이루면서 반전을 예비하게 된다. 우선 인격적 투시의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 사랑하는나의님
-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 님의얼굴에 눈머뭇습니다
-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 놀난가슴은 새로운숨에 터집니다
- 리별은 쓸데없는 눈물의源泉
- 것잡을수업는 숨의힘
-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엿습니다
- 제국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

이러한 인격적 투시가 지배적일 때 경험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그럼으로써 '감성적 화자'의 욕망은 경험의 환기 작용에 의하여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 산빛을세치고 단풍나무숨을 향하야
- 黃金의꽃가티 굿고빛나든 옛盟誓
- 차디찬피끝이되야서
- 한숨의微風
- 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비인격적 투시를 조화시켜 시적 공간을 조성하면서 ‘감성적 화자’의 욕망에 위성적 역할로 작용하여 ‘힘’을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축적’은 통찰의 넓이에 있어 안에서 바라보는 내부적 전망의 시간이 되어 불완전한 전망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감성적 화자의 불완전한 전망은, 이성적 화자의 억압 의지를 분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다가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근원적인 상황임을 인식하는 순간 감성적 화자는 이성적 화자의 힘을 억압하고 주어진 한계 상황을 뛰어 넘은 역설의 힘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파괴된 한계 상황은 초월적인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다가 급기야는 상황 자체를 반전시키게 된다.

즉,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써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과 “리별은 — 스스로 사랑을 제치는 것인 줄 아는 사담”으로 반전의 힘을 축적하고, “우리는 만날 때에 써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가티 써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맞습니다”에서 감성적 화자는 이성적 화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재하는 ‘님’을 향해서 “아아 님은 갖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옵습니다”로 역설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①의 “아아”는 선언적 의미의 이별의 슬픔이라면, ②의 “아아”는 하나의 휴지(pause)인 깨달음과 자각(이별의 부인)인 것이다. 이러한 역설의 힘은 반전의 상황을 유도하게 되고 주체와 대상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근원적인 한계 상황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게 된다. 바로 이 초월적인 상황 논리 속에서 주체의 욕망은 극한적인 재회 욕망을 꿈꾸게 된다.

이제 이러한 역동성의 명쾌한 논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상상력의 작용 원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V. 想像力의 作用과 構造의 全體性

그러면 이상에서 살펴 본 텍스트의 구조적 역동성을 상상력과 연관시켜 살펴 보기로 하겠다.

문학적 상상력(imagination)에 대한 인식은 영국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S.T 코울리지²⁵⁾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후 수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단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오다가 20C에 이르러 G.바슐라르에 의해 거대한 이론적 체계가 수립된 바 있다.

바슐라르는 “상상력은 사물과 이상으로 창조하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과 정신을 창조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각(vision)을 지닌 눈을 뜨게 한다”고 하면서 물질적 상상력과 형태적 상상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러한 상상력은 하나의 생성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한 편의 텍스트를 탄생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슐라르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물질적 상상력²⁶⁾, 역동적 상상력²⁷⁾, 그리고 원형적 상상력

25) R.L.Brett 저, 『공상과 상상력』, 심명호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 36에 의하면 코울리지는 “상상력을 감각적 지각과 오성의 사이에 놓이는 중개적 기능”으로 보고 이 상상력은 “구체와 추상이라는 두 가지의 특성을 조합해서 지니고 있는 상징의 원천”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적 상상력(2차적 상상력:secondary imagination)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재창조를 위하여 용해되고, 확산되고, 흐트러지고 …… 관념화되고, 통일화되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고 하여 지성적인 의지가 관계하고 있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26) 안 성수의 위의 논문 P.154에 의하면 “자연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상상력”이라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텍스트의 “산”, “숲”, “꽃”, “티끌”, “미풍”, “키스”, “향기”, “눈물”, “희망” 등으로 ‘地·水·火·風’이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7) 위의 논문 P.155에 의하면 ‘순수한 욕망’, ‘무상의 욕망’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 최초의 인간 활동으로서의 욕망이며, 이는 “전 영혼을

이²⁸⁾ 그것이다. 역동적 상상력은 진정한 의미의 상상력으로써 존재 생성의 힘으로 물질적 상상력과 원형적 상상력 사이에서 작용한다. 이는 물질적 상상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출된 이미지를 원형적 상상력에 도달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 상상력에 의해서 원형적 상상력에 가까이 가느냐, 접근하느냐, 아니면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문학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의 존재는 “문학적 이야기 속에서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이미지의 울림(詩的 交感)을 촉발하고 그 울림 자체를 특유의 존재 생성의 힘”으로써 이를 승화시켜 “미적 통일을 이룩하는 존재”이며 이의 작용에 의하여 “갈등구조가 화해의 구조로 전환되고, 욕망의 통제와 초월을 통하여 문학적 의미와 상징의 세계를 여는 역동적인 힘”²⁹⁾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한 편의 텍스트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을 가져야 시적 비전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비전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통일체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통일체는 이를 이루는 요소들 사이에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구조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편의 시를 유기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할 때, 문학적 상상력의 작용 방식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하나의 구조 속에는 표층적 진술과 심층적 진술이 있게 마련이고 여기에 따르는 진술의 量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술의 양에는 화자의 문학적 상상력이 하나의 구조를 갖게 된

움직이게 하는 총체적 성격”, 혹은 “인간 영혼의 통일”을 가져 오게 하는 존재 생성의 힘으로 요약되고 있다.

28) 각광수 外 앞의 저서 P.38에서는 상상력의 보편적인 궁극성 그 자체이며, 보편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29) 안성수,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랫폼 연구 이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89), P. 153.

다. 따라서 화자의 상상력은 어디에서 출발하며 귀착점은 어디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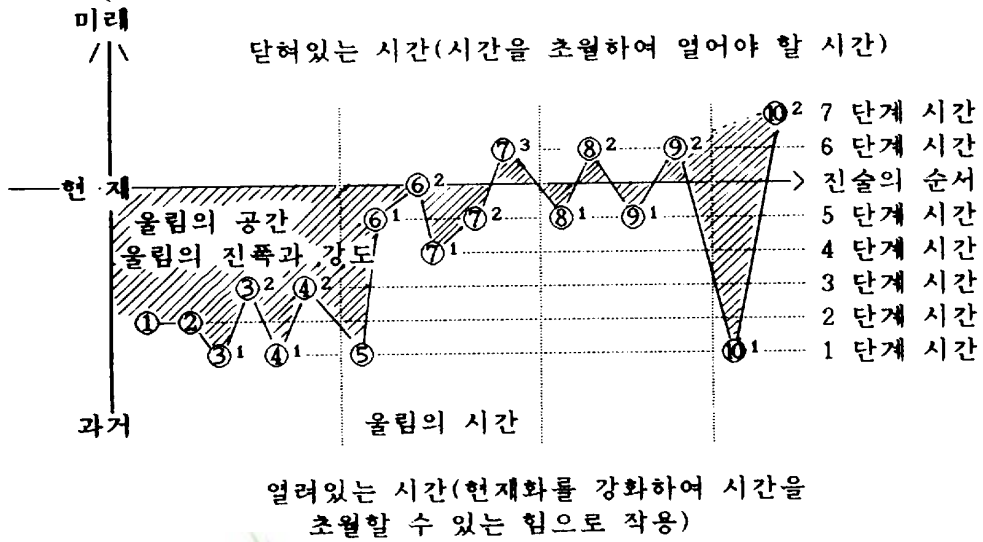
이 詩에서는 진술의 양이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중핵적 요소가 지배되어 동태적이게 하며, 여기에 심층적인 위성적 요소가 보충적으로 작용하여 정체성을 획득하고 이들의 유기적 관련 구조에 의해 미학적 공간이 확보된다. 이러한 미학적 공간을 형성해 주는 요소는 상상력(imagination)에 의해 再構된 ②③④⑤에서 보여 주는 — ‘푸른산빛’과 같이 싱그러운, ‘향긋로운’, ‘꽃다운’, ‘날카로운 키스’를 한, ‘굿고빛나는盟誓’를 한 등 — 물질적 상상력으로 표상된 ‘님’의 비유적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적 비전이 내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에 의해 화자와 화자 세계의 조응 관계가 성립되고, 궁극에 가서는 이 관계에 파격이 이루어져 마침내는 ‘침묵하는 님을 나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와 같은 역설적 논리를 획득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이 시에서의 상상력은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과 필연적인 관계 위에 놓이게 된다. “황금의 꽃”, “날카로운 키스”, “향긋로운 님의말소리”, “꽃다운 님의얼굴”, “계곡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 등은 정신적 체험을 유도하는 이미지로서 자신의 영혼을 쇠신케 하는 힘을 생성한다. 이러한 영혼의 쇠신을 바슐라르의 울림(retentissement)과 반향(résonances)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³⁰⁾ 즉, 울림은 존재론적 의미에서 전환과 그 힘으로 작용하고 시적 이미지의 심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반향은 표면적으로 감각되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는 이러한 영혼의 울림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역설과 반전 장치가 도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상력은 화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존재 생성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미지의 울림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30) 광광수 外, 『바슐라르 연구』, (민음사, 1976), P. 24.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올림과 같은 정서 작용의 조정은 앞에서 제기한 경험적 시간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보여준다. 이를 도표를 통하여 살펴 보면 올림의 미학적 효과는 다음과 같은 파장의 올림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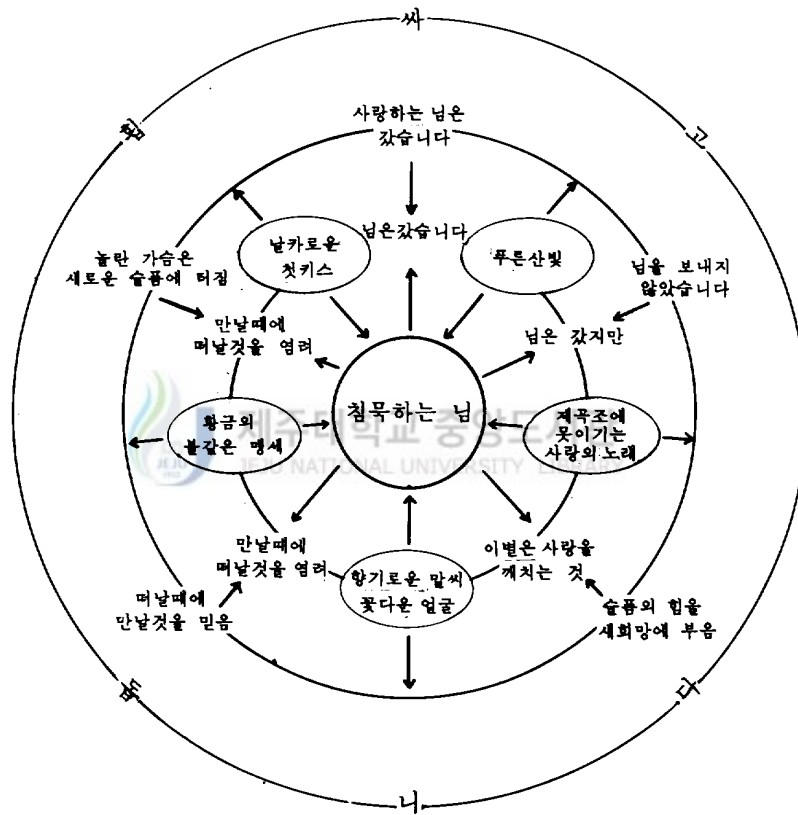
이러한 파장은 경험적 시간 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독자에게는 혼에 올림을 주는 힘으로 작용하고, 화자에게는 상상력으로 반항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달려있는 공간을 '이성적 화자'와 동반하여 '열어야 할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①②③④⑤에 의한 물질적 상상력이 자신의 구조 속의 모순을 재창조하는 변화 생성의 힘인 변증법적 상상력³¹⁾(①②③④⑤⑥)에

31) 안성수의 위의 논문 P.155에 의하면 변증법적 상상력은 존재생성의 역동성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에서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신의 구조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에서 바람직한 차원으로 이끄는 창조적인 변화 생성의 힘"으로, G.바슐라트의 세 가지 상상력 이외에 이 '변증법적 상상력'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의해 자연 분출된 이미지가 역동적 상상력(㉗㉘㉙)의 환경을 조성하는 힘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의지력으로 응집되었다가 분출하듯 터져 나오는 것이 “나는님을보내지 아니하엿습니다”인 것이고, 더 나아가 원형적 상상력인 “님의沈黙을 휩싸고돕니다”에 용해되어 미래를 향한 순환적이고 우주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적극적이며 순수하고 자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학적 상상력의 순환구조를 도식화하면



즉, 역동적 상상력에 의해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축적되어 원형적 상상력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둡니다”의 상상은 우주적, 순환적 시간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있다. 이는 수직적 시간으로써 수평적 시간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상상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침묵하는 님’은 시적 상상력 속에서 떠나 보낼 수 없으면서도 가까이할 수 없는 경외의 우주적, 神的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파문의 울림 구조에 의해서 서로의 사이를 감싸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 파장이 내부에서 상상의 한계에서 부딪혀 돌아오고 다시 뛰쳐 나갔다가 돌아 오는 반복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원형적 상상력에 도달하고 있다.

즉, 이러한 순환적이고 우주적인 상상력의 구조를 통하여 ‘가득 찬 등굣길의 이미지’³²⁾이 응집력을 갖고 구성을 부여하며 존재를 내밀화하고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파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문은 화자의 쉼 영혼을 지배하여 ‘님’을 상징화하는 힘으로 역설과 반전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2) 가스통 바슐라르 저, 『공간의 시학』, P.404에 의하면 존재와 외관의 이중 상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재는 둥글다(Das Dasein ist rund)’고 하고 있으며, 존재를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그 직접성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V. 結 論

이상에서 「님의 침묵」의 시적구조를 이루는 여러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구조주의 이론을 텍스트 분석의 기본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해석학과 현상학 등의 방법을 원용하여 작품의 의미와 구조의 해명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의 첫째 단계인 시적 자아의 욕망과 시적 플롯의 분석 과정은 의미론적 탐색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둘째 부분은 담화의 기법 분석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구조의 총체성을 상상력과 결부시켜 종합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화자의 욕망은 주체에 대해서는 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자를 빌어 그 욕망을 추구하지만, 이 중개적 요소는 화자와의 거리보다 주체와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화자의 욕망을 성취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화자로 하여금 갈등의 힘으로 작용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개자는 주체의 욕망추구에 기여하지 못하고, '감성적 화자'의 욕망이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힘'은 '님'을 더욱 선망하게 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선망은 '暗'에서 '明'으로 生滅의 원리에 의하여 순환되는 상상의 세계를 보여 주면서 이분법적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즉, "푸른산빛"의 세계와 "단풍나무숲"의 세계로 '님'이 있고 없음, 열려 있는 공간과 닫혀 있는 공간의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생멸의 순환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단풍나무숲"의

세계는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어야 할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중개자와 제2의 중개자는 주체로 하여금 이분법적 인식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산'과 '숲'은 그 깊이에 있어서는 어둠의 무한을 가지고 있어 화자의 영혼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적은길'은 내밀한 깊이로 통하는 門이다. 이 내밀의 세계는 문을 사이에 두고 'ex의 현상학'을 위한 요소들로 짜여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내밀의 공간과 외부 공간은 끊임없이 서로 고무하면서 '이별을 부인'하는 욕망으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것이다.

(2) 시적 플롯에 있어서는 첫째, 화자는 자연적 시간에 의해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시간에 의해서 인식하고 행동하여 역동적 행동으로 작용하여 비유의 거리와 정서 흐름의 구조를 이루어 미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이러한 시적 구조를 스토리 라인(story line)과 플롯 라인(plot line)으로 배열해 보았을 때, 작품의 내부로부터 긴장이 유발되고 이로 말미암아 미학적 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셋째, 역설을 위한 준비와 역설의 실천적 행위는 중핵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성의 보조 기능에 의해서 강화되어 미적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⑩의 "님의沈黙"은 '침묵하는 님'으로 표상되어 경외적 존재로 인식하고 화자의 극한적인 능동적 행위로 귀결되고 있다.

(3) 변증법적 인식 원리에서는 첫째, 주체의 욕망이 상승과 하강을 통하여 갈등의 해소와 점증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 주어 반복적 정서로 의미를 증폭시켜 님에 대한 그리움인 본원적 사고로부터 變으로 작용하고 조명되어 행위의 결말부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써 주체

의 인식은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게 된다.

둘째, 이러한 초월적 인식의 세계는 자연적 시간에 의한 공간적 순서보다 경험적 시간에 의한 진술로 인하여 하나의 논리적 오류를 낳지만 오히려 조직적으로 작용하여 더 논리적인 행위를 분출케 하는 힘의 원리로 작용하여 관념을 유도함으로써 변증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4) 거리의 현상학에서는 첫째, 화자의 심미적 거리 조절로 상반되는 두 개의 사건 — 이별과 재회에 대한 갈망 — 이 심미적으로 반응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미적 거리는 감정의 흐르는 속도까지 조절하는 기능으로 작용하여 직설로써는 진리를 표현하기 어려운 '님'과 화자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다.

둘째, 화자는 청자와 화제보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기 위하여 거리를 조정하여 높임법에 있어서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이며 의례적인 어조로 진술하고 있다.

셋째, 따라서 '님'은 가까이 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리 속에 존재하는 敵畏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있다.

(5) 시간착오와 변형기법의 차원에서 살펴 볼 때 이 시는 기본적으로 첫째, '과거의 만남'과 '현재의 이별'이라는 시간착오의 거리(portée)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넓이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표상된 행동이 지속(durée)하는 시간임을 볼 수 있다.

둘째, 시간의 빈도(fréquence)에 있어서 두 시간성의 관계는 하나만의 진술이 하나만의 사건을 환기하는 일회적(singulatif)이야기로 시작되어 두 개 이상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을 환기하는 다회적(répétitif)이야기로 진술하는 방식을 통하여 주체의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효과를 낳는다.

셋째, 절대시제를 통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발화의 시간이 현재임을 드러내어 화자의 동작상이나 발신의도 및 인식이 단절적 발화가 아닌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상대시제를 통하여 발신자의 현재 동작상을 나타내면서 현재의 이야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기'의 시간성을 얻어 내고 있다.

(6) 역설의 힘과 반전 장치에서는 첫째, '욕망의 힘'이 투시의 방향에 따라 흐르게 되는 누적된 정서와 그 힘의 도움을 받아 정점을 향하여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이성적 화자'가 개입하여 하강을 시도하게 되지만, '감성적 화자'는 '이성적 화자'의 욕망을 뛰어 넘는 역설의 힘을 분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이러한 '힘의 축적'은 통찰의 넓이에 있어 안에서 바라보는 내부적 전망의 작용으로 불완전한 전망으로 표현되고, 이에 따라 이성적 화자는 불완전한 전망을 완전하게 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두 화자 사이의 거리가 역설과 반전의 힘으로 용출하고, 이로 말미암아 감성적 화자는 초월적인 상황 논리 속에서 재회의 욕망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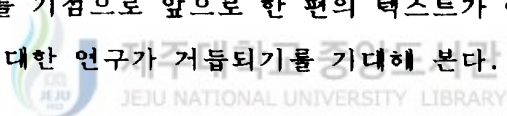
그리고, '상상력과 구조의 전체성'에서는 첫째, 경험적 시간의 파장은 상상력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 파장에 의해서 혼의 울림을 가져 오는 점. 둘째, 화자의 상상력은 순환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파문을 일으켜 미학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셋째, 이를 통하여 '침묵하는 님'은 시적 상상력 속에서 떠나 보낼 수 없으면서도 가까이할 수 없는 경외의 우주적, 神의 대상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은 물질적 상상력에서 자연히 분출되는 이미지가 변증법적 상상력과 역동적 상상력에 의해서 원형적 상상력에 용해됨으로써 얻어지고 있다.

즉, 원형적 상상력에 용해됨으로 말미암아 순환적이고 우주적인 구조를

남아 '가득 찬 동굴의 이미지'를 이루고,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파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의 파도는 화자의 숲 영혼을 지배하여 역설과 반전의 힘으로, '님'을 상징화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이 연구는 구조주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상상력의 원리를 원용하여 하나의 텍스트가 문학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완결된 총체성을 지니게 되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지금까지 구조주의적 분석이 흔히 보여준 형태론적 분석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조의 작용 원리를 역동적인 미학의 차원으로 끌어 올려 설명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곧 문학 텍스트의 연구가 궁극적으로 문학성을 해명하는 데 있으며, 이의 해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못내 아쉬운 점은 '어조'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지 못한 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한 편의 텍스트가 어떻게 문학성 획득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기를 기대해 본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 곽광수 外 著. 『바슐라르의 연구』. 민음사, 1976.
- 국어국문학회 편. 『현대시연구』. 정음문화사, 1984.
- 김병욱 편. 『현대 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3.
- 김시태 편. 『現代作家 作品論』. 이우출판사, 1982.
- 김열규外 편. 『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
- 김영호 저. 『한용운과 위트먼의 문학 사상』. 도서출판 상사연, 1988.
- 김윤식 저. 『한국현대시론비판』. 일지사, 1978.
- 김재홍 저. 『한국 현대시인 연구』. 일지사, 1987.
- . 『한용운 문학 연구』. 일지사, 1982.
- 김정자 저. 『한국근대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삼지원, 1985.
- 김종균 저. 『梅泉·萬海·芝薰의 詩人意識』. 박영문고, 1982.
- 김준오 저. 『시론』. 문장사, 1982.
- 김천혜 저.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0.
- 김치수 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기린원, 1989.
-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발간위원회 편. 『한용운 전집1 - 6』. 신구문화사, 1979.
- 만해사상 연구회 편. 『한용운 사상 연구1』. 민족사, 1980.
- 박종철 편. 『문학과 기호학』. 대방 출판사, 1983.
- 송욱 저. 『시학평전』. 일조각, 1970.
- 신동욱 편. 『님의 沈黙하는 시대의 노래』. 문학세계사, 1983.
- . 『한용운 연구』. 새문사, 1982.

- 윤재근 저. 『“님의 沈黙” 연구』. 민족문화사, 1985.
 이승훈 편. 『한국문학과 구조주의』. 문학과 비평사, 1988.
 이울환 저. 『언어학 개설』. 이우출판사, 1978.
 이인복 저. 『죽음의식을 통해 본 소월과 만해』. 숙명여대 출판부, 1979.
 최동호 편. 『새로운 비평 논리를 찾아서』. 도서출판 나남, 1990.
 한국현대시문학대계2. 『한용운』. 지식산업사, 1982.

번역서

- 가스통 바슐라르 저.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민음사, 1990.
 뮤어 저. 『소설의 구조』. 안용철 역. 정음사, 1975.
 시모어 체트먼 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민음사, 1990.
 웨인 부우드 저. 『소설의 수사학』. 최상규 역. 새문사, 1985.
 유리 로트만 저. 『시 텍스트의 분석 ; 시의 구조』. 유재천 역. 가나, 1987.
 츠베랑 토도로브 저. 『구조시학』. 곽광수 역. 문학과 지성사, 1983.
 폴 지네스티에 저. 『바슐라르의 사상』. 김현수 역. 금문당출판사, 1983.
 혹스 저. 『구조주의와 기호학』. 정병훈 역. 을지문화사, 1984.

외 서

- Caserio, L. Robert. Plot, Story, and the Novel : from Dickens and Poe to the Modern Period.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79.
 Culler, Jonathan. Structuralist Poetics, Ithaca, N.Y. : Cornell. Press, 1978.
 Hawkes, Terence. ed, Structuralism and Semiotics, London : Methuen & Co Ltd, 1977.
 Spilka, Mark (ed.). Towards a Poetics of Fiction, Indiana Univ. Press, 1977.

논문

- 김병택. “만해시에 나타난 꿈의 성격과 전개 양상”. 문학과 비평, 1988. 여름.
- 김선학. “시인 한용운”. 동국어문논집 제 10집, 1977.
- 김우창外. “만해 한용운”. 문학사상, 1973년 1월.
- 김현자. “김소월 · 한용운 시에 나타난 상상력의 변형구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논문, 1982.
- 안성수. “구조주의 텍스트 분석 방법론과 그 실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81.
- .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89.
- . “한의 맺힘구조와 역동적 상상력”. 제주대학교 논문집, 1988.
- 양중해. “만해 한용운론”. 제대학보, 1976.
- 유근조. “소월과 萬海 시의 대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83.
- 윤석산. “소월시 연구—화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89.
- 채수영. “한용운에 있어서의 ‘님’의 거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83.

Summary

The Study on the Structure of
"Poem Lover's Silence" by Poet Han Yong-un

Yang Young-gill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Soon-pil

In the previous statements, various parts which construct the poetic structure in "Poem Lover's Silence" are examined. By employing the structural literacy theory as the basic methodology in the analysis of this text, and using interpretation methods and phenomenology, this study tries to approach the explanation of the meaning and structure in this Poem.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poetic self"'s desire and poetic plot, the semantic research was sought. Second, the dimension of analyzing the skill in the poetic conversation. Third, the synthetic process of connecting all of the poetic structures with the poetic imagination.

The results in the previous discus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First, Because a poetic narrator's desire for the poetic subject cannot be accomplished directly owing to the absence of "a lover," the desires are sought through poetic mediators; However, the intervening factors have the more poetic distance from the poetic subject than from the poetic speaker, so the factors cannot make a contribution to accomplishing the poetic speaker's desires, and it functions as the power causing the poetic speaker to stand in a discord. And then, poetic mediators, which cannot make contribution to the poetic subject's seeking his desires, have acted as the "one power" in the desire of "esthetic speaker," which makes "a lover" regarded with envy. Second, such envy represents the literary imagination world in which "darkness" changes into "brightness" cyclically in the "living-died" principle, showing the dichotomous poetic structure. In other words, To the world of "blue mountain's colour" and "scarlet-tinged woods," a "lover" exist or not; there is the poetic structure in "an open space" and "a closed space."

However, this dichotomous structures repeatedly show the "living-died" circulation in the poem. Therefore, the world of "scarlet-tinged woods" can be in the end functioned as not "a closed space" but "can-be opened space." And then, the first mediators and the second mediators have supplied the power which makes the poetic subject recognize a world aloofly as well as dichotomously. Third, the depth in poetic words "mountain" and "woods," which contains an infinite darkness, indicates where the poetic desire goes, which the

poetic speaker's sole seeks continuously. Therefore, the poetic word "a lane" is the door to the secret depth in this poem. This secret world, which lies in between the doors, are constructed by "ex-phenomenology. The internal space and external space, which through the agencies inspire each other, are rising up as the desire" denuding the separation from 'a lover'."

(2) First, because poetic speaker doesn't recognize and act in the natural time, but recognize and act the experienced time, by "acting inversely," the poetic plot of "Lover's Silence" is composed of the "distance of metaphor" and "the stream of emotion." Second, when such poetic structures are arrayed as story line and plot line, the structure can reinforce the aesthetic structure owing to triggering the internal intension in the poem. Third, the preparation for "a poetic paradox" and "paradoxically practical action in the poem" are on the basis of the kernel events; By the poetic satellite's assistance, those are developed and sublimated aesthetically. therefore, in the poem word 10, "lover's silence is expanded to "silent lover", recognized as the "reverential being," and finally come to the extremely positive actions.

(3) In the dialectically-reconciling principle, first this poem shows that through "uprising" and "downing" in the poetic subject's desire to the discord are reduced and settled, amplifying repeatedly the emotion to the poetic meaning, acting and illuminating original thinking into reverse, and then standing in the ultimate value in the final actions. Thus, the recognition of the poetic subject become aimed at the poetic transcendent world. Second,

Such a transcendent world of recognition creates one error, by stating first "experienced time" rather than the sequence of the poetic space in "natural time." Still the error, which acts organizingly and created the principle emitting the more logic actions, are understood as the poetic dielectric which give birth to poetic idea.

(4) In the phenomenology of the poetic distance, the poetic speaker's two events which control esthetic distance— the desire for " separation " and " meeting again"— are in the ground to the esthetic response; This esthetic distance also can be functioned as controlling the "poetic velocity" of the emotion's stream, which could measured the distance between the "poetic speaker" and " a lover" which it can be difficult to be expressed as the " truth." Second, to sing the poem in the more passive position, the poetic speaker uses the relative honorific term by adjusting the distance in the poem. Third, therefore, though " a lover" is near, he or she is exist in the distance not easily accessable, who is recongnized and loved as a reventential being constantly.

(5) In the dimension of "anachronices" and " transformational poetic techique," first, this poem, which basically maintains the " portee" of anachronies between " meeting in the past" and " separation in the present," establishe the poetic breadth. the " portee" also is seen as" the time when symbolic actions last in the poem. Second, in the frequency in the poetic time, the two poetic time's relation, in which one statement begins as a sigular story which evoke one events, brings a poetic effect to emphasized and show what the poetic subject of desire is, through the stating method in the poem in which

more than two events can be described as a repetitive story arousing one accident. Third, through the absolute tense in this poem, the outbreak time in the past accident represents the present; and then then, the poetic speaker's aspects, transmitting intention and recognition shows that the past condition — which is not a poetic discontinued ignition— has continued to the present age; the poetic relative tense represents the aspect of "poetic sending man," obtaining the time of the poetic propection which can transcend the present story.

(6) In the poetic paradoxical power and the poetic reversal device, first, "desire power in the poem" ascends the poetic climax in the help of the poetic accumulated emotion which flow along the penetration's direction in the poem. Here, through the "poetic reasonable speaker" intervenes and attempts to stop ascending, "the poetic sentimental speaker" spurts the poetic paradox's power which can overpass the desire of "the poetic reasonable speaker." Second, this poetic accumulative power is expressed as an imperfect vision by the poetic internal vision which looks inside in the "breadth of insight." Thus, the poetic reasonable speaker represents the poetic will to make the poetic imperfect vision as perfect as possible. The poetic distance of two speakers is emitted as the poetic paradox power and the poetic reversal. And then, the poetic sentimental speaker dreams of the desire for "meeting again in the transcendent situation logic."

In the "poetic imagination and the totality of the poetic structure; first, the wave length of the poetic experienced time is

due to the poetic imagination causing the poetic sole's "retentissement; second the poetic speaker's imagination, which maintain the poetic circulatory structure, create the poetic ripples, establishing the poetic aesthetic space; third, through this, "a silent lover" is recognized as an inaccessible poetic being who is reverential, cosmic and holy. This is got by spurring image of self in material imagination dissolved in original imagination by dialectic imagination and dynamic imagination. This is, it is dissolved to original imagination to bear circling and cosmic structure and forms "full circle's image" and is waving constantly inside the image. This internal wave rules the whole soul of speaker and work as symbolizing power of "lover" by that of paradox and reversal.

In the above, this study, which use the principle of the poetic imagination on the basis of the poetic structural theory, showed that how a text contain the poetic generality in the literary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not only treat the morphologic analysis which the poetic structural analysis has showed till now, but also tries to approach "how to explain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structured theory by draw up to the dimension of the poetic dynamic aesthetics. This trial come from the fact that "the study on a literary text lies in the explanation of the literature, in which the key principle should be given."

Finally, the my hope after the finish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study on the approach to the tone of the poetic voice will be accomplished. In the future, also, the study on "How can a text obtain the literature" should be expected to continue.